

즉시 보도용

2025년 9월 25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노숙 위기 대응 지속 — **Inside Safe**, 철도 인근 노숙인 거주지에서 주민 보호

로스앤젤레스 — 노숙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이어가며,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이번 주 **Inside Safe** 프로그램을 통해 시 전역에서 약 60명의 앤젤리노를 보호 시설로 이주시켰다고 발표했다. 오늘은 샌퍼낸도 밸리 노스리지의 철도 인근 노숙인 거주지에서 주민들을 실내로 옮겼으며, 일부는 수년간 그곳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일에는 LA시 8지구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노숙인 거주지 대응 태스크포스(SAFE)’와 협력하여, 사우스 L.A.의 오랜 노숙인 거주지에서 40명이 실내로 옮겨졌다. 관련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배스 시장은 “기차 선로든, 고속도로 옆이든 로스앤젤레스 시는 도시 전역에서 노숙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리 12지구 시의원은 “철도 인근 노숙인 거주지는 거주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근 가정과 사업체에도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며 “우리 지역사회는 이곳에서 걷고, 운전하고, 일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 주민들을 실내로 옮기고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주거와 안정으로 향하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취임 직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 [인사이드 세이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시 전역에서 100곳 이상의 텐트촌이 해소됐고, 수천 명이 보호 시설로 옮겨졌다. 또한 배스 시장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이전을 가로막던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고, 3만여 가구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며, LA4LA를 통한 혁신적 주거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장 기금(Mayor's Fund)이 주도하는 검증된 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앤젤리노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노숙자 실태조(Point in Time) 결과는 다음과 같다.

- LA에서 2년 연속 노숙 인구 감소
- 2022년 12월 배스 시장 취임 이후 거리 노숙인 17.5% 감소 – 2005년 조사 시작 이래 2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
- 천막, 임시거처, 차량- RV 거주자 수 13.5% 감소 – 2년 연속 하락
- 영구 주택 이주 건수 사상 최고치 기록

RAND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할리우드 지역은 지난해보다 노숙인이 49% 줄었고, 베니스 지역도 감소세를 보였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 역시 “전국-캘리포니아주의 추세와 달리 LA시는 노숙 인구가 줄어든 예외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

